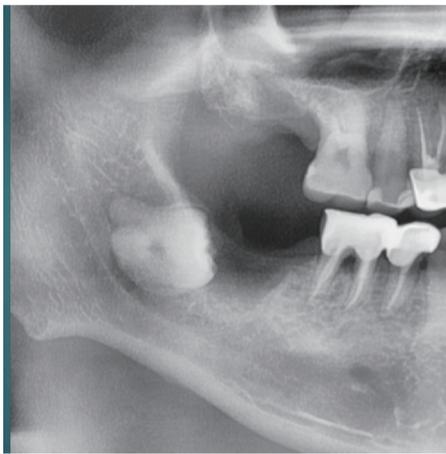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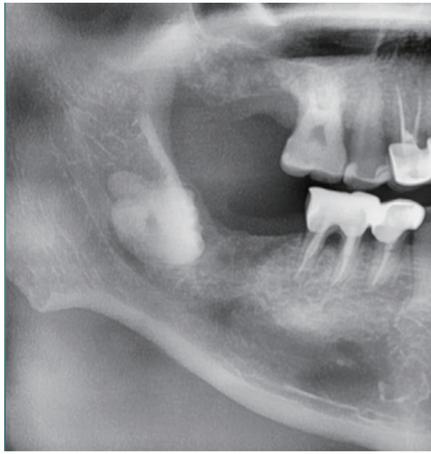


〈그림 8 Case 1 40번째 CBCT 사진〉

그림 7,8에서 보듯이 두 곳의 bone density가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40번째는 피질골을 제외하고는 하악구치부지만 실질적으로 D4 정도의 bone density를 갖고 있었다. 실제 수술에서도 40번째는 두 단계나 언더 드릴을 하고도 고정이 높지 않았다. 파노라마만으로는 쉽게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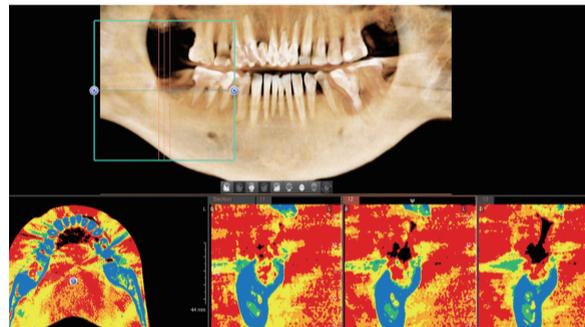
〈그림 9. Case 2 2017년 3월 #47 치주 발치 후 파노라마사진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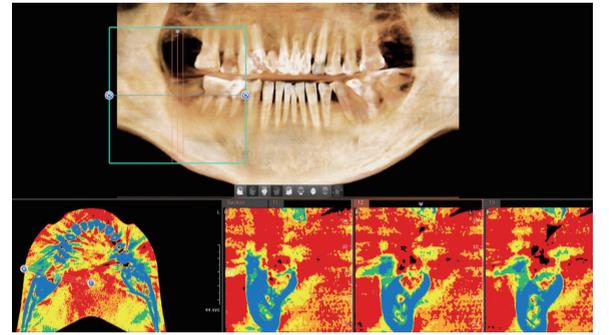
〈그림 10. Case 2 2018년 3월 #47 부위 파노라마사진〉

그림 9,10. Case 2를 보면 #47번 치주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위해 기다리는 41Y,M 환자이다. 2017년 1월에 발치 후 3월에 촬영하였고 1년후에 재내원하여 CBCT촬영을 하였다.

파노라마 상으로는 골의 회복이 거의 된 것처럼 보인다. 같은 부위의 CBCT 사진이다.



〈그림 11. Case 2 2017년 3월 #47 치주 발치 후 CBCT사진〉



〈그림 12. Case 2 2018년 3월 #47 부위 CBCT사진〉

그림 11,12에서 보듯이 협설측 cortical bone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. 아직도 회복이 파노라마에서 보듯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.

Bone density의 예측은 임플란트 식립시에 픽스처의 직경 타입, 드릴의 단계, 초기 고정의 예측, bone heating의 예방 등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. 일반적인 해부학적 특징이나 dental history를 파악하고 수술 시 드릴의 저항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. 정확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. 메디컬에서 쓰는 방법은 여러가지면에서 적당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. 치과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치근단 사진이나 파노라마, CBCT를 이용할 수 있는데. 파노라마나 치근단 사진보다는 CBCT를 통한 분석이 더 정확하고 정량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.



김우주 원장

-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
- 치의학석사
- 현)고운이치과의원 원장.